해외배낭연수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 - 호주, 뉴질랜드]

목 포 시

Ⅰ. 견 학 개 요

1. 연수명 : 2018. 문화예술 진흥 방안 등 선진사례 체험 및 견학

2. 연수목적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해외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리시 시책과 비교함으로써 체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 발전시키고자 함

3. 연수개요

가) 연수기간 : 2018. 4. 19(목) ~ 4. 26(목) 6박8일

나) 연수국가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로토루아)

다) 연수인원 : 14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비고
1	문예시설관리과	행정5급	김혜란	여	
2	자연사박물관	행정6급	김용희	여	
3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주석재	남	
4	수도과	공업6급	조동준	남	
5	자동차등록사무소	세무6급	이명진	남	
6	세정과	세무6급	장덕일	남	
7	자원순환과	공업6급	신성원	남	
8	건설과	행정6급	김춘성	남	
9	북항환경관리과	공업6급	김진명	남	
10	교통행정과	운전7급	김귀섭	남	
11	수도과	기계7급	김정진	남	
12	체육시설관리과	건축7급	한양주	남	
13	상하수도행정과	사무7급	이성관	남	
14	수도과	전기7급	김학봉	남	

4. 견학 주요내용

가) 호주 시드니 항 : 세계 3대 미항,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 커팅된 오렌지 조각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오페라 하우스**

○ 시드니 항을 가로 지르는 **시드니 하버브리지(철제 아치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블루마운틴**

나) 뉴질랜드 :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도시

○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와이토모 동굴**

○ 다양한 모양의 온천이 모여 유황냄새가 물씬 풍기는 **데푸피아 간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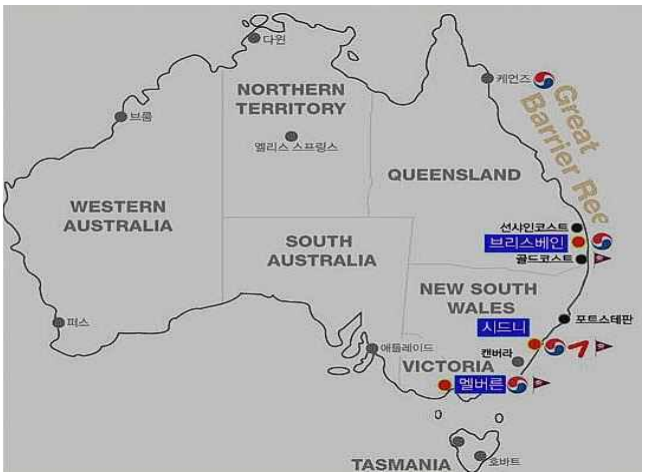
○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는 **레드우드 수목원**

5. 견학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도 시	연 수 내 용
4.19(목)	20:00~	출국	• 목포→인천→시드니
4..20(금)	07:15~	시드니	• 블루마운틴 : 세자매 바위, 궤도열차 등 • 호주 해양역사를 보여주는 시드니 아쿠아리움 • 세계3개 미항인 시드니항의 신셋디너크루즈 탑승
4.21(토)	전일	포트 스테판	• 시드니 시청 : 건국 100주년 약속의 장소 • 바다와 사막이 어우러진 포트스테판 • 캥거루, 코알라 등 동물을 볼 수 있는 오크벨동물원
4.22(일)	전일	시드니	• 아름다운 **시드니항(세계 3대 미항)** **오페라하우스 내부 견학, 하버브릿지 관람** • 시드니 최고의 해변 본다이 비치 • 시드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들리페이지
4.23(월)	23:30	오클랜드	• 남서쪽에 위치한 반딧불 석회동굴 와이토모 동굴 • 세계 10대 스파 중 하나인 폴리네시안 스파
4.24(화)	전일	로토루아	• 오클랜드 시청 :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 • 뉴질랜드의 전통 농장 아그로돔 농장 • 마오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마오리 민속촌
4.25(수)	전일	오클랜드	• 아름드리 삼나무가 가득한 레드우드 수목원 • 시내 전경과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에덴동산
4.26(목)	06:50~	입국	• 오클랜드→시드니→인천→목포

Ⅱ. 연수국가 기본현황

1. 호 주



○ 국　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 (Canberra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약 33만명)

○ 면　적 : 약 770만㎢(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78배 / 세계에서 6번째)

○ 위　치 : 오른쪽으로는 남태평양이 왼쪽으로는 인도양이 있다.
한국에서 직항으로 9시간 30분 소요

○ 인　구 : 약 2,200만명(2010. 12월 현재) - 한국 46%수준

○ 민　족 : 영국과 아일랜드계(80%), 원주민(2%), 아시아계 등

○ 교민현황 : 9만명(2008.12.), 유학생 약2만5천명

○ 언어/종교 : 영어/기독교인 약 70%

○ 정　치 :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6개 주정부, 2개 특별구, 연방 정부, 의회(양원제)로 구성

○ 기　후 : 일반적으로 북부 연안은 열대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중남부 연안은 온대~냉온대기후로 사계절. 대륙 중앙부는 사막기후

1 시드니

○ 인　　구 : 약 430만명

○ 면　　적 : 1.2만㎢

○ 도시적 특징 : 시드니는 호주 동부 연안에 위치. 육상 교통 요지, 전국 인구 1/4이 모여 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 호주 경제의 중심지이자 가장 오랜 역사 지닌 곳. 호주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며,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하버 위치.

○ 자연 및 기후 : 사계절이 있으며 아침, 저녁 기온 차가 큼

○ 시드니의 역사

- 1770년 쿡선장이 보타니 베이(Botany Bay)에 상륙
- 1788년 1,400명 이상의 유형수, 군인들을 실은 최초의 영국 함대가 시드니에 도착
- 1793년 최초의 자유 정착민들이 시드니에 도착
- 1851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시드니 인구 급증
- 1925년 시드니 인구가 100만을 돌파
- 197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개관
- 1988년 건국 200주년 행사 개최. 달링 하버(Darling Habour)오픈
- 2000년 시드니에서 근세에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경기' 개최
- 2007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세계 문화유산 목록(World Heritage List)등재
- 2010년 하이드 파크 버락스(Hyde Park Barracks)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7위 선정

2. 뉴질랜드

○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위치 : 대양주 남단, 남태평양(15,811km), 동경 174°00〞, 남위 41°00〞

○ 수도 : 웰링턴(인구 38만)

○ 면적 : 270.534㎢

○ 인구 : 470만명 (유럽인 56.8%, 아시아인 8%, 마오리족 7.4%, 태평양 섬 주민 4.6%, 혼혈 9.7%, 기타 13.5%)

○ 기후 : 해양성 기후(1월 평균기온 20°C, 7월 평균기온 11°C)

○ 언어 :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도시주민 수 : 오클랜드 98만, 캔터베리 43만, 웰링턴 38만 등

○ 종교 : 개신교 38.6%, 카톨릭교 12.6%, 기타 16.6%, 무교 32.2%

○ 경제 : 부존자원이 없어 국제무역과 해외투자, 관광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6만2천달러

○ 목초지 : 경지면적의 약 80%

○ 화폐단위 : 뉴질랜드 달러(NZD)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임기 3년)

○ 건국일 : 1907. 9. 26.

1 오클랜드

○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82.9㎢이고 인구는 약 140만명 정도이다. 코로만델 반도 기부(基部)에 해당하는 대지성(臺地性) 지역 중심에 있으며, 지형은 복잡하여 좁은 타마키 지협에 의하여 북쪽의 와이터마타, 남쪽의 마누카우의 두 항구로 나누어진다. 1840년 와이터마타 해안의 백인 천막취락이 기원이며, 시 이름의 유래가 된 인도 총독 오클랜드에 의하여 도시의 바탕이 이루어졌다.

○ 개척 초기에는 북섬이 그 중심이 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의 요지를 이루는 이곳도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국토 전체로 보면 북쪽에 치우쳐 있음에도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다.

○ 와이터마타항은 천연의 양항으로서 내외 항로의 중심이며, 조선소·해군기지가 있다. 기후가 온난하여 태평양에서의 해상·항공 교통의 요충이며, 그 때문에 웰링턴으로 수도가 옮겨진 뒤에도 뉴질랜드의 현관으로서 번영하였다. 오클랜드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있으며, 공원·운동장 등의 문화시설도 많다.

○ 마오리족(族)에 관한 자료가 풍부한 전쟁박물관(1929), 16세기 이전의 인쇄본 등을 소장한 공공도서관(1887), 시립미술관(1888)이 유명하다. 부근에 간헐온천·호수·진귀한 화산지형 등 관광자원이 많다.

2 로토루아

○ 로토루아는 오클랜드의 남동쪽 약 200km 지점, 로터루아호(湖)의 남서 끝 북부 화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면적은2,614.9㎢이고 인구는 약 6만6천명 정도이다. 온천이 많아 관광·휴양도시로서 발달했다. 특히 남쪽 교외의 대간헐천(大間歇泉)은 유명하다.

○ 예로부터 마오리족(族)의 거주지로 현재도 전통적인 취락을 남기고 있으며, 인구의 20% 이상이 마오리족이다. 근래에는 농업과 임업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1920년대부터 부근의 화산대지에 외래(外來) 침엽수의 식림사업이 진행되어, 1939년에 와이파에 뉴질랜드 최대의 제재소가 건설된 이래 목재가공업이 성하다

○ 화산지대인 로터루아는 간헐천이 많아 뉴질랜드 최대의 관광지로 손꼽힌다. 화카레와레와는 로터루아 남부의 광대한 산림공원지역으로 간헐천과 함께 마오리족의 문화연구소가 있다. 마항가는 이곳의 간헐천 중 하나로 쌍둥이 간헐천이라 불리기도 한다.

Ⅲ. 주요 방문지별 견학내용

1. 호주 (2018. 4. 19. ~ 4.22.)

1 블루마운틴 (4.20.)

○ 시드니 서쪽으로 약60키로 떨어진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으로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해발 1100미터의 사암고원 지대이다. 유칼리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푸른 유액사이로 태양광선이 통과하면서 파장이 가장 짧은 푸른빛을 반사하여 생긴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푸른빛과 가파른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블루마운틴은 호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시닉월드 케이블웨이는 과거 석탄을 채굴할 때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02년 시드니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용열차로 개조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545미터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궤도를 타고 블루마운틴을 더욱 가까이서 느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래에 내려 블루마운틴의 열대우림을 채운 식물군을 직접 관찰하고 느껴보는 산책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마신 공기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세자봉</td><td>케이블웨이 관광용열차</td></tr>
</table>

2 시드니 아쿠아리움 (4.20.)

○ 시드니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14개의 테마 구역으로 이루어졌다. 세계 최대 규모 산호초가 전시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구역,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생물을 볼 수 있는 쥐라기 바다 구역, 600종의 호주 토종 어류가 노니는 시드니 하버 구역, 바다의 인어라 불리는 듀공 구역과 공포의 대형 상어 '레몬 앤 그레이 너스샤크(Lemon and Grey Nurse Sharks)'가 사는 샤크벨리 구역, 멸종 위기 호주산 가오리가 있는 베이 오브 레이즈 구역 등이 눈에 띈다.

시드니 아쿠아리움

3 시드니 시청 (4.21.)

○ 타운 홀은 조지 스트리트와 시드니 시내 상업·금융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시드니의 시청사로 1880년대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이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시드니의 시청사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유럽풍의 멋진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사진 속 배경지로도 많이 사용된다. 타운 홀 안에는 시의회당, 리셉션장, 센테니얼홀 등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오페라 하우스 다음으로 랜드마크로 꼽는 장소 중 한 곳이다. 이곳에 쓰인 건축물 자재들은 모두 시드니에서 산출된 것들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시드니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시드니 시청

④ 포트스테판 [4.21.]

○ 길게 뻗어 있는 하얀 백사장과 32km의 스탁턴 비치(Stockton Beach)를 따라 6,000년 전 생성된 모래언덕, 그리고 숨죽이도록 아름다운 해안선. 이것이 포트스테판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포트스테판 만의 풍경이다.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4WD 모래 언덕 투어(4WD Sand Dune Tours). 4WD를 타고 황홀한 모래 언덕을 이동하면, 이제 신나는 모래썰매 타기가 기다리고 있다. 모래의 가파른 경사에 주춤주춤하지만 한번 그 재미를 알면 자꾸만 타고 싶어지는 보다 색다르고 짜릿한 경험이다. 수백미터의 모래언덕에서 왁스를 칠한 나무썰매를 타고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래썰매의 스릴은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준다.

포트스테판 모래언덕

⑤ 오크벨 팜 야생동물원 [4.21.]

○ 호주에서 가장 넓고 새로운 동식물 관광지인 시드니 오크벨팜은 달링하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동물원으로 호주의 독특한 야생 동물들을 자연 산림상태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토종 동물 및 조류가 가장 많은데 호주를 대표하는 캥거루, 왈라비, 에뮤, 코알라를 비롯해 악어와 맹독성을 지닌 뱀도 19종 6,000여 마리가 있다.

특히,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고 자라는데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 살기 위해 안에서 밖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산불이 나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외형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내면을 중요시 하는 호주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 이곳은 도심 속에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이곳을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 효과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캥거루	코알라

⑥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4.22.]

○ 시드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1959년에 착공하여1973년에 완성하였다. 14년에 걸친 긴 공사기간과 총공사비A$ 1억200만 달러를 들여 건설된 오페라하우스는 106만 5000장의 타일로 된 요트모양의 지붕이 한 눈에 보인다. 이 건축물은 1957년 호주정부에서 개최한 국제 공모전에서 32개국 232점의 경쟁작을 물리치고 선발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우츤의 작품이다. 처음에는 건축 구조의 결함으로 공사 시작이 불가능하였으나 1966년부터 호주 건축팀이 공사를 맡아 완성하였다. 내부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4개의 커다란 홀로 나뉘어져 있다. 1,500석의 오페라 극장을 비롯, 2,900석의 콘서트홀과 544석의 드라마 극장, 288석의 스튜디오, 400석의 연극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 시드니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한 곳, 하버브릿지는 싱글아치(single arch)형 다리 중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다리로 시드니항의 상징이다.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59m인 이 대형 다리는 마치 옷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낡은 옷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파이론 내부를 통해 다리 위로 올라 갈 수 있으며, 인도도 있어 북쪽으로 걸어갈 수 있다. 호주 건국 200주년이던 1988년에 다리의 외곽에 녹색의 조명등을 설치하여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데이트 코스로 파이론 전망대 4개의 교각 중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교각 상단은 전망대로 사용중인데, 다리 건축에 대한 역사자료와 관련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다.

오페라하우스 야경	하버브릿지

⑦ 본다이 비치, 더들리페이지 [4.22.]

○ 시드니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로 시드니 중부부에서 차로 약30분 정도 걸리고1km의 거대한 백사장을 자랑한다. 넓은 백사장과 거친 파도가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곳으로 주말이면 늘 많은 인파로 붐빈다. 본다이는 원주민어로 '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 ' 라는 말에 걸맞게 서퍼들이 서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한다. 본다이 비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캠벨 퍼레이드 근방에는 번화가가 형성되어 각종 편의 시설을 비롯하여 쇼핑센터, 커피숍,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다. 특히 본다이 비치는 일명'토플리스'라 하여 남, 여 모두 하의만 입어도 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본다이 비치 근방에는 타마라마 비치를 비롯하여 쿠지 비치, 브론테 비치 등의 아담한 해변이 자리잡고 있어 지나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본다이 비치에서 언덕을 올라 산등성이에 도착하면 잔디가 한없이 펼쳐진 전망대가 바로 더들리 페이지다. 더들리 페이지(Dudley Page)라는 개인소유의 땅이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 혼자보기 아깝다고 시드니시에 기부를 했다. 또한 기부한 이곳의 아름다운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지하를 물탱크로 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곳에서 올라 내려다보면 해안선을 끼고 형성된 도시의 모습, 특히 하버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와 비교되는 바로 앞 집들이 대조를 이루는 전망이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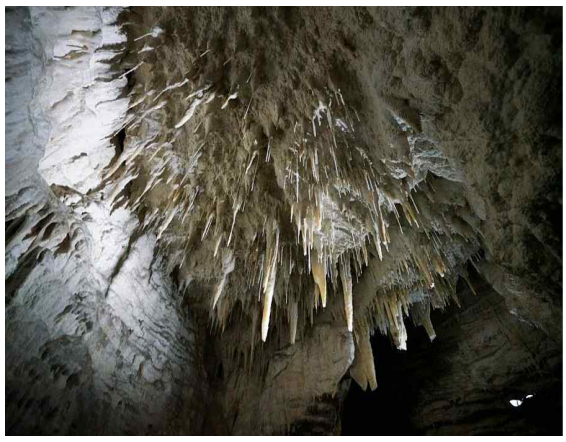
본다이 비치

더들리 페이지

1. 뉴질랜드 (2018. 4. 23. ~ 4. 26.)

1 오클랜드 와이토모 동굴 [4.23.]

○ 와이토모 동굴은 수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회 종유동굴로 뉴질랜드 북섬여행의 하일라이트라고 할수 있다. 천장에서 내려온 종유석과 바닥으로부터 자라오르는 석순들,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이룬 석주들로 동굴 안은 경이롭다. 동굴 탐험 지역 중에 조금 넓은 광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곳에서 간혹 연말 크리스마스 등을 맞아 음악회도 열린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외국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자니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에 뭔가 찡한 것이 느껴져 오는 것 같았다. 동굴 관람의 하이라이트는 반디불 서식지를 보트로 관람하는 코스이다. 동굴 안에서는 사진촬영도 금지되어 있고 말을 해서도 안된다. 천지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천정에 반짝거리는 반딧불을 관람하고 있노라면 신비로움을 넘어 몽환적인 느낌이 든다.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곳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석회동굴

반딧불

② 폴리네시안 스파 [4.23.]

○ 로토루아 시내에 위치한 온천으로서 류마티즘과 근육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여행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가운데 하나이며 1882년에 지어진 온천욕 건물은 로토루아에서 역사가 가장 긴 건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table>
<tr><td> </td><td> </td></tr>
<tr><td colspan="2">폴리네시안 스파</td></tr>
</table>

③ 오클랜드 시청 [4.24.]

○ 퀸스트리트(Queen Street)에 있는 신(新)르네상스 건축양식의 유서 깊은 건물이다. 1909~1911년 동안 건설하여 1911년 12월 14일 개관하였다. 1994~1997년에 대대적으로 개수하였다. 원래의 건물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은 행정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오클랜드 시청사</td><td>시청사 주변건물</td></tr>
</table>

④ 아그로돔 농장 [4.24.]

○ 거대한 목양 농장으로 푸른 들판에 노니는 수많은 양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농장내부에 있는 공연시설에서 펼쳐지는 양털 깎기쇼를 볼 수 있다. 양털 깎기 쇼는 하루에 세 번 이루어지며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쇼가 끝난 후에 쇼의 시범을 보인 목양인부가 공연장 밖의 울타리 안에서 목양견이 양몰이를 하는 시범을 선보인다.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아그로돔 농장</td>
<td>양털 깎기 쇼</td>
</tr>
</table>

⑤ 마오리 민속촌 [4.24.]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민속촌은 입구에서부터 웅장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듯한 고전적인 마을이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들고 안으로 들어가면 마오리 마을의 복원광장이 나오는데 매일 이곳에서 마오리족 민속공연이 펼쳐지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약30분 가량동안 펼쳐지는 공연에 모두 환호성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노라면 역시 음악은 세계공통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고유음식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맛있고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는 마오리족의 전투용 카누가 전시되어 있고, 과거 냉장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전통가옥(정자)도 전시되어 있어 마오리족의 생활상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였다.

마오리족 공연

⑥ 테푸피아 간헐천 [4.24.]

○ 로토루아에서 가장 큰 지열지대로 다양한 모양의 온천이 모여 있는 간헐천이며 유황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서 마오리족 민속마을 내에 있다. 가장 볼만한 것은 수증기가 피어나는 지열대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연못이 있다. 이곳을 지나면 20~30m의 높이의 온천수가 한시간에 한번 꼴로 힘차게 뜨거운 물을 내뿜고 있는 것이 마치 커다란 음악분수대의 분수쇼와 같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장관을 이룬다.

테푸피아 간헐천

⑦ 레드우드 수목원 [4.25.]

○ 로토루아 근교 레드우드 수목원(Redwood Grove)에는 뉴질랜드 임업 시험장이 있으며,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 차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바친 뉴질랜드 병사들을 위해 산림청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를 육종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레드우드 수목원이 되었다. 산책코스는 15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부터 8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코스를 선택 할 수 있다. 레드우드 산림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최상의 삼림욕장이다. 특히 날이 맑은 아침이면 신선한 산소로 잠깐의 산보로도 몸이 가뿐해 짐을 느낀다.

레드우드 수목원

⑧ 에덴동산

○ 오클랜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에덴동산이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화산 분화구로 높이는 196m이며 산 정상에는 휴화산과 분화구를 볼 수 있고, 이곳은 오클랜드항과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15분만 걸으면 잘 정돈된 나무 숲과 잔디로 아름답게 꾸며진 산 정상에 도착한다. 동쪽 경사지로는 1964년에 개원된 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2018년 목포시 공무원 해외배낭투어 연수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문화예술 분야) 연수기간 : 2018. 4. 19 ~ 4. 26 (6박 8일)	http://blog.naver.com/kyuju1
	화산 분화구

Ⅳ. 우수사례

○ 해변 및 공원에 간이 샤워기 및 음수대 설치

- 골드코스트, 본다이비치 등 해변에 바닷물을 씻어낼 수 있는 간이 샤워부스 설치, 공원 및 학교 건물 주변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음수대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

해변 및 공원에 간이샤워기 및 음수대 등 설치 사례

○ 도로 및 공원 등 야외주차장 무인 주차권 발급기 설치

- 도심 내 야외 주차장 및 공원 내 주차장에 무인 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상의 효율도 높이고 있음

도심 및 공원 야외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주차권 발급기

○ 공공 화장실 세면대 설치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 공공화장실의 세면대, 수도꼭지 등을 물결 모양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배수관으로 배수되게 시설하여 오페라하우스의 품격을 높임

공중 화장실 세면대

○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트리워크 설치로 새로운관광 상품개발

-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대표관광지 레드우드에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트리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하늘 위 숲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삼림욕을 즐기며 하늘 길을 걷는 재미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레드우드 수목원 트리워크

Ⅴ. 시책화 가능사업

○ 해안을 연결하는 수상택시 운행

-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맞아 고하도↔평화광장 등을 연결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유료로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수상택시, 일명 “수상관광 콜택시”를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수상 관광콜 택시

○ 박물관 어린이 발굴체험

-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하여 공룡알, 화석 발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차마여 할 수 있는 체험 및 화석 본뜨기 등 맞춤형 체험 콘텐츠 등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선사시대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 마련

화석 본뜨기 등 어린이 발굴체험

○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 활성화

- 문화예술회관 주변 갓바위권역과 신안비치호텔 ↔ 구) 조선내화 친수공간 등 적정장소에 야외공연 및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을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기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공간 제공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야외무대 및 공연

○ 외달도 해변내 비상상황 알림벨 설치

- 외달도 인공해변과 평화광장 친수공간 등에 비상상황 발생 알림벨을 설치하여 이용객 및 관광객의 갑작스런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을 유지, “안전한 도시”이미지 정착

인공해변에 설치된 비상상황 알림벨